

은폐되고 가려진 현실의 이면을 드러내는 변증법적 관음증

김윤경(몽인아트센터 디렉터)

Yun-kyoung Kim (Director, Mongin Art Center)

작업실 창문을 가득 채웠던 먼 풍경 속의 무성했던 나뭇잎이 사라지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풍경이 펼쳐진다. 무성한 초록이 사라진 자리에서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한, 가려져있던 현실의 모습에 대한 재인식으로부터 이명진은 이야기를 시작한다. 청와대 부근의 낡은 여관 공간을 활용한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2007년 이명진은 어느 날 자신의 작업실로 사용되던 오래된 여관방의 창문을 통해 바라본 익숙한 풍경 뒤에 은폐되어 있던 현실을 발견하게 된다.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불현듯 드러난 경회루의 모습이 너무도 낯설게 다가온 순간, 이명진은 주위의 익숙한 풍경 뒤로 은폐되고 가려진 현실의 이면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된다. 마치 수세기를 하루 같이 같은 장소에 존재해 온 경회루가 무성한 나뭇잎에 가려져 인식조차 되지 않았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도 은폐되고 가려진 이면들이 존재하리라는 생각은 보안여관의 작업실 벽에 투사되었다. 색 바래고 습기 찬 벽지의 무너 사이로 이명진은 70여년의 세월이 머금고 있었던 그 누군가의 이야기와 기억을 끄집어내어 드러냈다.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으며, 심지어는 가려져있거나 은폐되어 있는 것들을 찾아내고 끄집어내고 드러내려는 작가의 관심은 위장(偽裝)을 하기 위해 군사장비나 군복에 적용된 미채(迷彩, camouflage)로 그 개념이 확장되어 캔버스 작업으로 전개되었다. 나무합판을 자르고 붙여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고 마치 퍼즐을 맞추듯 자신의 내밀한 기억들, 심리적 경험들을 찾아가던 이전의 작업이 외부로부터 내부를 향해 끈질기게 파고 들어가는 작업이었던 반면, 이러한 캔버스 작업은 내면을 향하던 작가의 시선이 외부로, 타인에게로, 그리고 세상으로 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이명진의 변화된 시점은 최근의 작업들인 <이창(裏窓, Rear Window)>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드러난다. 작업실과 집을 오가는 길에서 흔히 발견되는 풍경들을 찍은 사진을 출력하여 OHP 필름에 복사한 후, 임의대로 선택된 이미지들을 벽면에 핀으로 고정시킨 설치작업과 분홍색 회화작업이 그것이다. 한적한 교외의 풍경 속에서 시선을 잡아끄는 건물이라던지, 간판, 표지판과 같은 것들의 이미지와 분주했던 한낮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어스름한 해질녘의 쓸쓸한 도심에서 가로등과 상점의 불빛들 사이로 드러나는 낮선 사물들의 이미지들은 작은 전구의 분홍색 불빛을 받아 희미하게 드러나 벽 위로 어른거리는 그림자를 떨어뜨린다.

알프레드 히치콕(Alfred Hitchcock)의 1954년 영화 <이창>에서 제목을 따온 이 작업은 가리는 것과 가려진 것을 드러내고 이 시대의 진실된 풍경을 탐색해가려는 작가의 또 다른 시도이다. 수십 년간 살아온 지역을 떠나 새로운 지역에 거주하게 된 작가의 일상으로 불현듯 들어온 이질적인 환경은 그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직접보고 인식하고 경험하도록 했다. 불 꺼진 상가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는 가발, 의족, 의수, 의치 등 결핍된 진짜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용품들, 분홍색 불빛이 흘러나오는 사창가의 골목길. 작가의 일상 속에 함께 존재해왔지만 작가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 인식되지 않았던 것들이 어느 날 저녁, 집으로 향하던 차창 너머로 불현듯 드러났을 때 느꼈던 그 두렵고

기괴한 느낌은 가려지고 은폐된 것들에 대한 작가의 관심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내부에서 밖으로 시점이 달라지는 계기를 마련했던 보안여관에서 작업 이후, 이렇듯 이명진은 자신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는 외부의 풍경을 향해 시선을 드리운다. 사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것, 가려진 것에 대한 관심은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모티프로 작업했던 <숨바꼭질(Hide-and-peek)>에서도 발견된다. 낡은 사진 속에서 남아있는 작가의 과거 모습과 그것을 바라보는 현재의 모습, 그 서로 다른 시간에 존재하는 두 시선의 교류는 잊혀졌던 것들,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을 불러내어 현재의 맥락 속에 위치 지운다. 반면, 그의 시선이 외부로 향하게 되면서부터 그의 시선은, “문지방(경계)에 서서 바라보는 것이 작가로서 자신의 입장”이라는 그의 말대로, 타인과 외부를 바라보는 응시의 시선을 고수하고 있다. 자신을 향하던 이전의 ‘교환되던 시선’은 가려지고 은폐되어 있는 사회를 향한 ‘관음의 시선’으로 변화된 것이다. 그래서인지, 진짜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명백한 가짜인 것들이 사실은 그 자체로는 진짜이며, 심지어 때로는 더 소중한 진짜가 될 수 있는 그 존재론적 경계에 대한 측은지심(惻隱之心)으로 시작된 <이창> 시리즈는 이른 봄 화사하게 피어났다가 덧없이 저버리고 마는 벚꽃처럼 안타깝고 서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진의 <이창>이 흥미로운 이유 중 하나는 그가 히치콕의 영화 <이창>에서 제목만을 따온 것이 아니라 주인공의 시선 작용까지도 관심을 가졌으리라는 기대 때문이다. 다리를 다쳐 움직일 수 없게 된 <이창>의 주인공은 아파트의 창문을 통해 이웃 주민들의 은밀한 삶을 바라보기 시작하는데, 권태로운 일상에서 시작된 이 훑쳐보기는 망원경을 통한 일방적인 시선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살인사건을 목격한 순간 이후 주인공의 관음적 행위는 사건에 연루되어 무언가를 ‘자발적’으로 하도록 촉발시키는 동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변증법적 관음증으로 전개되어 간다. 자신의 내면으로 침잠하던 작업에서 시선의 교환으로 과거와 현재의 소통을 유도해냈듯이, 타인을 향하는, 외부로 향하는 이명진의 시선 역시 스스로를 은폐시키고 훑쳐보는 관음적 시선이 아닌, 숨겨지고 은폐된 것들을 보다 자발적인 맥락으로 끌어내는 작업으로 확장되기를 기대해본다.